

부처님의 몸 “산을 그대로 놔두라”

2002년 불교계 화두는 자연파괴에 따른 수환경경 침해를 어떻게 막느냐였다. 산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의 난도짐에 핏빛 울음을 터트렸고 나무는 허연 속살을 드러내며 신음했다. 사찰은 고층아파트와 송전탑에 둘러싸여 질식당했고 스님들은 이를 항의하다 무자비하게 폭행당했다. ‘산을 그대로 놔두라’는 한 시인의 절규는 서울 근교 북한산에서 부산 금정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 메아리쳤다.

1997년 4월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100인 선언’부터 시작한 북한산 관동도로 저지 운동은, 2002년 ‘북한산국립공원 살리기 백운대 배너지위’로 문을 열었다. 북한산 살리기 운동은 지난 3월 LG전 설축 공사장 인부들이 관동도로 건설에 항의하던 회동사 비구니 스님들을 폭행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결국 3월 15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2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환경 수호를 위한 범불교계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결의대회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이름으로 유시가 발표됐고, 비구니 스님들의 관동반대 결서와 우정국 앞 거리에서 참회와 눈물의 108배가 불행했다.

이후 불교계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해 같은 노선인 수락산 불암산 구간 공사중지에도 힘을 보탤다. 하지만 시공사측의 사주로 추정되는 일부 승려들과 경비업체 직원들이 새벽에 북한산 철마선원을 급습해 농성장에 있던 수경스님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북한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은 식을 줄 몰랐다. 수경스님 등은 7월 18일 3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3보 1배’를 강행하다 탈진해 병원으로 후송됨으로써 보는 이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결국 8월 14일 조계종 공대위와 시공사는 북한산 터널 노선 재검토를 합의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회창 노무현 두 후보들에게 북한산 관동도로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받아냈다.

자연을 파괴하고 수환경경을 침해하는 사례는 북한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비구니 승방으로 유명한 천년고찰 서울 미타사는 조합측의 거짓말로 사찰 앞 8M 거리에 들어선 15층 아파트로 질식위기에 처했다. 미타사측은 공사장 앞에 농성장을 만들어 농성에 들어갔고 결국 조합과 현대산업개발측은 대체법당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경기남부의 비구니 도량인 용인 화운사는 송전탑 건설로 수환경경 침해를 물론 사찰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화운사가 강하게 반발하자 한국 전력은 화운사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은행나무로 유명한 양평 용문사는 사찰 앞에 현대식 향토박물관이 들어서는 것에 항의해 공사장 앞에 임시법당을 지어놓다 철거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산을 지키고 사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한반도 남녘에서도 가열차게 일어났다. 부산시민의 95%가 금정산, 천성산 터널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나온지도 벌써 반년이 흘렀지만 노선 변경은 아직 요원하다.



◇통도사에서 불과2km떨어진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때문에 영축산이 벌건 허리를 드러낸 채 신음하고 있다. 양산시는 통도사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단 한번도 갖지 않았다.



◇몇년째 끌어온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은 통영시의 묵묵부답으로 ‘산문폐쇄’라는 극단의 조치까지 취해졌다.



◇금정산·천성산 살리기는 종교와 승속을 뛰어넘은 국민적 운동이었다.

2002 수환경경 파괴현장

북한산 30여 사찰주변 관동도로
 용인 화운사 송전철탄에 포위
 미타사 앞 8m 15층 아파트
 금정·천성산 고속철도 관동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강행
 통도사 인근 영축산에 위락단지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북한산 ‘철마선원’. 12월말 현재에도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범종교계·시민단체 자연파괴 거센항의 비구니스님들 결서·참회 눈물의 108배

새 반년이 흘렀지만 노선 변경은 아직 요원하다.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동반대 시민종교대책위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쳐며 자연환경과 수환경경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이어왔다. 올 1월 지음스님을 중심으로 내원사 비구니 스님들이 천성산 살리기 국토순례 발대식을 갖고 부산역을 출발, 서울 고속철공단까지 도보 행진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시민종교대책위의 크고

북한산 관동도로 전면재검토 이끌어 내 종단초월 범불교적 환경수호기구 절실

작은 노력들은 싹 틔워 이어졌다. 이후 내원사, 범어사, 부산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를 가졌고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초월한 환경운동으로 확대됐다. 천성산, 금정산을 지키는

일에 신부와 수녀들이 팔을 걷고 나섰고 삼보일배에 함께 한 윤희동 신부와 분도수녀회 수녀들의 땀방울이 도심 대로를 적셨다. 종교를 초월한 자연사랑이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고 결국 민관

협의체 구성이라는 절충안을 끌어내기에 이르렀다.

금정산, 천성산 구간 노선 재검토 공약이나 시민종교대책위의 지속적인 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와 고속철공단은 공사 강행 입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고 있다. 특히 고속철 공단은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나 지질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천성산 구간에 대해 업체 선정 발주를 내는가 하면, 대구-부산 구간을 당초보다 2년 앞당겨 내년 초 착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음스님과 통도사는 건교부와 고속철공단에 발주 취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금정산, 금정산과 그 산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수환경경 보호라는 큰 줄기에 맞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 밖에도 통영의 미륵산이 케이블카 설치로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몇 년째 끌어온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운동은 16일 용화사가 산문을 폐쇄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98년부터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시민의 모임’을 결성하고 현재 통영환경운동연합과 용화사를 중심으로 2달여 동안 미륵산 입구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통영시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축총림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 중턱 1만 3000여 평이 골짜기 연승장을 비롯한 호텔, 여관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위한 토목 공사로 마구 파헤쳐지는 사건도 일어났다.

사람 관련 분쟁은 사람이거나 종단이 개발의 바람을 먼저 감지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각종 건설 시 사전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도로, 전통신호, 문화재가 포함되도록 환경정책 기본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사찰 경내를 관통하거나 주변 지역에서 각종 도로 개설, 건축, 토목행위, 케이블카 설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신호법준법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종단을 초월하는 범불교적인 사찰환경수호기구의 설립도 절실히 요구된다.

2002년은 UN이 정한 ‘세계 산의 해’였다. UN이 이례적으로 ‘산’을 연중 캠페인 주제로 정하고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던 것은 ‘인류의 어머니’인 산이 그만큼 많이 훼손돼 가고 있다는 것을 뜻했다. 또 작년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이 9조 2521억원을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11만 9040명의 주민이 시위나 농성에 참여했고 이들의 생업손실은 59억 5200만원에 이른다.

‘산의 해’에 불자들이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투입한 돈과 인력은 얼마나 되었을까? 또 내년 ‘물의 해’엔 얼마나 투입해야 할까?

글=천미희·남동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읽을 수...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이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르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